

3월을 맞아 각종 교육기관들이 일제히 문을 여는 요즘, 신입생을 모집하며 개강을 준비하는 독특한 학교가 있다. 바로 범음·범패를 지도하는 학교들이다.

이들 학교는 비록 제도 교육에서의 학교와는 내용과 형태가 다르지만, 불교의식에 필요한 음악과 무용의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며 오늘날까지 불교 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주 크다. 특

신입생 모집·개강준비 바쁜 범음대학 - 어산작법학교 일반인에게도 문 활짝

“불교 전통문화 오늘에 잇자”

이들 범음대학은 스님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문을 개방하고 있어, 불교 전통문화와 불교의식을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범음대학의 원조격인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은 1969년 결성된 육전범음회를 모태로 지난 94년 창설됐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범음·범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곳은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이자 학장인 구해스님을 비롯해 교육보유자

일운, 기봉, 송강스님 등이 지도한다.

3년 과정으로 1학년 상주권공, 2학년 각배, 3학년 영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연구반에 입학해 짓소리와 안차비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있는 범음·범패의 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졸업 후 영산재보존회의 준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각종 공연과 행사에 동참할 수 있다. 020392-3234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

교의식 전문교육기관인 조계종어산작법학교도 어산과 작법과 불전 의식과에서 전통 불교의식을 지도한다. 1년 과정인 어산과는 범패, 산중작법, 상주권공 등을 공부한다. 6개월 과정인 작법과에서는 바라무와 작복무 등을 지도하고, 도량석과 각종 시식, 예경 등 제반 의식은 불전 의식과에서 집중적으로 배운다. 조계종어산작법학교는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인도 원하면



범음대학은 사라져가는 불교 전통문화와 의식을 연구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구나 공부할 수 있다. 020921-3425 해동불교범음대학은 기본과정(3개월)과 중급과정(3개월) 작법반(6개월), 신행과정(1년)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한다. 기본과정에서는 사물법고, 운관, 목어, 범종, 다루는 범부터 도량석,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을 배우게 되며, 상주권공과 신중작법, 관음시식 등은 중급과정에서 배운다. 작법반에서는 요점바라, 현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등을 배우게 된다. 02741-0495 영산재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사무처장 범음스님은 “범패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은데, 상주권공 16곡만 전수하는 데 3년이 걸린다”면서 “하지만 속속을 막판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우리 전통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p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여행의 추유증인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니, 평소엔 그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신체의 온갖 부위가 말을 걸어온다.

가만히 몸이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니, 발끝에서부터 어깨, 목, 머리끝까지 저마다 아우성이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저것들이 마치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통통으로 인해 그 존재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래, 참다운 ‘있음’은 마치 ‘없는 것’ 같아야 하고, 일단 그 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벌써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없는 것처럼 있기’, 이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 應無所住而生其心’의 뜻도 이것 아니겠는가?

이성선의 새 시집 ‘내 몸이 우주가 손을 얹었다’를 읽었다. 올해 한강을 맞이하는 이 시인은 그동안 10권이 넘는 시집을 발표해왔는데, 실학산 아래 자연 속에 폭 파묻혀서 내려간 이번 시집은 선미(禪米)로 가득했다. 책장을 넘기자마자 ‘출가’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다.

해지기 전에 아주 잠깐 담배를 기대었다 떠나간 나무 그림자처럼 출가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 풀더미 속에 앉아 풀더미가 되어버린 집

문학이 떨어지고 지붕에 별 비가 새고 텅 빈 집, 바람만 와서 차고 가는 섬광 같은, 달빛같이 사는

생각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헛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존재의 의미를 추구한다. 젊은 시절 그 화려한 가슴 탐구석이 존재의 가시에 밀린 후로, 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마련할 때까지 그 상처로부터 끊임없이 선홍빛 피가 흘러나온다. 바쁜 일상에 묻혀 그 상처를 잊고 살기도 하지만, 환절기가 올 때마다 가슴앓이 병은 계속 도지기만 한다.

그 아픔을 소중히 하며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수도자와 예술가이다. 문득문득 일상을 급습하며 불속 뛰어나오는 존재의 이질성을 불고놓아지며 그 해답을 구할 때까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 치열한 싸움의 전리품이 ‘사리’이다. 여기 이성선이란 시인의 사리 한 알이 있다. 작지만, 맑고 영롱하다. 그러나 이 몇 마디 말이 시인의 펜을 통해 흘러나올 때까지, 그가 얼마나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능히 짐작이 간다.

시는, ‘출가’란 단순의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자연과 하나된다는 것은, 원효가 좋아했다는 화엄경 구절 일도를 생사 일체무애인(一出生死 一切無碍人)처럼, 생사로부터 초탈하는 것이다. ‘무애’가 되려면 몸과 마음에 원기가 걸리면 안될 것이다. ‘더러움’은 ‘덜 앓음’이다. 아주 없어져야 깨끗해진다. 그러나 우리 생활인들이 ‘텅 빈 집’이 되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이나. 그저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줄어 나갈 수밖에 없다.

문학평론가



우리 전통 문화의 멋과 미,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배워보자.

새봄에 눈여겨 볼 우리문화강좌

우리 전통 문화의 멋과 미,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배워보자.

한옥문화원은 8월부터 문화강좌와 ‘한옥으로의 초대’ 강좌를 연다. ‘건축 사진 강좌’, ‘무늬 강좌’ 등을 통해 우리 한옥문화를 읽는 시각을 열어준다. ‘건축 사진 강좌’는 민가 건축과 사원건축 등을 직접 찾아 실습도 할 예정이며, ‘무늬 강좌’에서는 우

한옥 문화원 성천 아카데미

리 전통무늬를 생활에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한옥의 특성과 미학을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파트를 한옥처럼’ 집짓기의 전 과정을 알 수 있는 ‘내집을 지을시다’ 등의 강좌도 진행된다. 020562-0303 성천아카데미도 9월부터 ‘우리문화 발원 강좌-우리 예술의 얼과 뿌리’를

한옥으로의 초대 우리문화 밝힘

시작한다.

전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 박사, 가현박물관 윤영수 실장 등을 강사진으로 ‘한국인의 미의식’ ‘우리 그림의 이해’ ‘민화의 해학과 멋’ ‘장승달기’ ‘토기의 역사, 용기의 원류’ 등 우리 문화예술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꾸렸다. 020786-1755

문학소식

사천 운흥사 음악회
경남 사천 운흥사는 2일 부처님 출가일을 맞아 신사음악회를 열었다. 영산재 시연에 이어 열린, 신사 음악회에는 성각가 정철스님, LMB싱어즈, 마하연 국악실내악단, 소리꾼 최진숙씨 등이 출연했다.

장욱진 禱 목판화전
가나아트센터 아트스페이스에서는 장욱진 화백의 10주기를 회고하며 선화시리즈 목판화를 공개 판매한다. 선화시리즈 목판화는 장화백 특유의 단순한 선과 해, 달, 산, 소나

무, 아이들, 집의 모티프를 형상화한 것으로 총 76세트만 제작된 소장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네 자신을 찾아라’ 과거 현재 미래는 마을 속에 있다’ 날마다 좋은 날 등 총 25점이다. 030321-1020

70년대 마을로 사진여행

강운구 ‘마을 3부작’ ... 25일까지 금오미술관

사람이 사는 환경으로서의 마을과 집, 자연경관들을 주제로 한 사진가 강운구씨의 사진전 ‘마을3부작 전’이 25일까지 서울 금오미술관에서 열린다.

현실의 기록이라는 사진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예술 행위로서의 사진이 가진 따뜻함과 애뜻함을 잃지 않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마을3부작-황골, 용대리, 수봉리>라는 연작 시리즈로 지금은 어린 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70년대의 마을들을 사진으로 되살려냈다.

초가, 주택, 너와집, 견책집(초가의 일종, 역사로 지붕을 엮음) 등 사라져간 것들의 아름다움과 실용성,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자신만의 시각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강씨는 1966년 조선일보 사진부 기자를 거쳐 94년 <우연과 필연>, 98년 <모든양면>으로 2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사진집으로 <경주남산>(1987),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1999)가 있다. 020720-5114 이은자 기자



새천년의 발원

- 손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림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만월등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인공임 캐즈백어(백어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류 특수보유임계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